

순창향교, 제27회 유림지도자 기로연 개최했다

순창군 유림·지역 인사 80여 명 참석… 효자효부상 시상 및 원로 예우 행사 진행

순창향교는 28일 제27회 유림지도자 기로연'을 열고, 경료효친 정신을 되새기는 뜻깊은 자리를 마련했다.

'기로연'은 조선 태조 이성계가 70세 이상 고위 관료들을 모아 연회를 베풀며 존경과 화합의 정신을 나눈 행사에서 유래했으며, 현재는 성균관과 각 지역 향교에서 그 전통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행사에는 최영일 순창군수, 손종석 순창군의회 의장을 비롯한 지역 기관·단체장과 향교 유림, 주민 등 80여 명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행사는 대웅전 분향례를 시작으로 국민의례, 윤리선언문 낭독, 성균관장 효

자효부상 시상, 전교 기념사, 내빈 축사, 헌수 순으로 진행됐다.

시상식에서는 ▲성균관장 효자효부상에 전은신·이서영 부부, ▲순창향교 전교 효자효부상에 장병환·이정남 부부가 각각 선정됐다. ▲전교 장수패는 이성봉 유림에게 수여됐다.

아울러 순창향교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김상현(순창군 문화관광과), ▲배영서(산림공원과) 주무관, ▲순창시니어클럽 소속 신순자·안옥희·김영자·강삼순 씨에게 감사패가 전달됐다.

특히, 80세 이상 원로 유림지도자들을 특별히 초청해 그동안의 헌신에 감

사를 표하고, 함께 술잔을 나누며 건강과 장수를 기원하는 시간도 마련돼 참석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최영일 군수는"어르신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를 드리고, 여러분의 삶과 헌신이 오늘의 순창을 있게 한 밑거름"이라며 "전통과 현대가 조화를 이루며, 모두가 존중받는 건강한 공동체를 실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순창군은 11월부터 관내 11개 읍·면에 위치한 정부양곡 보관창고에서 2025년산 공공비축미 매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신승민 기자

보성-전남대병원 ‘백세인 연구조사 발대식’ 개최

95세 이상 어르신 건강·생활환경 조사 장수 요인 분석

전남 보성군은 전남대학교병원 한국 백세인연구단(윤경철 노화과학연구소장)과 함께 ‘백세인 연구조사 발대식’을 개최하고,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발대식에는 박상철 전남대학교 석좌교수, 윤경철 노화과학연구소장, 한재영 전남대 노인의학센터장 등 연구진과 김철우 군수를 비롯한 군 관계자들이 참석해 연구 추진 방향을 공유하고 협력 체계 강화를 다짐했다.

연구 조사는 전남대학교병원 노화과학연구소가 주관하며, 보성군에 거주하는 95세 이상 장수 어르신을 대상으로 개별 심층 인터뷰를 통해 ▲개인 특성 ▲건강 상태 ▲식습관 ▲가족 관계

▲생활환경 등을 다각적으로 분석한다. 조사 결과는 고령사회 대응 정책 수립과 건강 장수 연구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본 조사는 10월 27일부터 약 10일간 진행되며, 연구진이 읍면을 방문해 대면 방식으로 진행하며, ‘녹차수도 보성’의 청정 자연환경과 생활 문화가 장수에 미치는 영향도 함께 분석해 지역 특화형 장수모형을 제시할 계획이다. 김철우 군수는 “이번 백세인 연구 조사를 통해 우리 어르신들의 삶 속에 담긴 건강한 장수의 비결을 과학적으로 규명하고, 보성형 건강 노화 모델을 만들어 나가겠다”며 “연구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한편, 보성군은 오는 11월 3일부터 ‘영농부산물 파쇄지원단’을 본격 운영해 산물 예방과 미세먼지 저감, 농촌 일손 부담 완화에 나선다.

보성군은 3인 1조로 구성된 2개 파쇄지원단을 편성해 각 농가 현장을 직접 방문·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산림 인접지 100m 이내 농가와 고령·취약계층 농업인을 우선 지원하며, 군민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운영 기간은 11월 3일부터 12월 10일 까지로, 신청은 각 읍면 농민상담소 또는 농업기술센터 방문 접수를 통해 가능하며, 차량 진입이 가능한 농지에 부산물을 모아두면 지원단이 직접 방문해 무상으로 파쇄 작업을 진행한다.

우덕현 기자

장수군, 오산시와 고향사랑기부제 기탁식 개최

장수군은 오산시와의 지속적인 교류협력과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위해 장수군 농업기술센터에서 뜻깊은 기탁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장수군의 대표 농특산물인 사과 수확 체험과 함께 진행되어 양 지역 주민 간 우정을 다지고 상생 발전을 다짐하는 의미 있는 시간으로 마련됐다.

오산시민들이 장수군의 청정 자연 속 사과밭에서 탐스럽게 익은 사과를 직접 수확하며 장수 사과의 품질과 품미를 체험했다.

현장에서는 사과 수확 요령과 품질관리 과정에 대한 설명이 이어졌고, 참가자들은 자신이 딴 사과를 상자에 담

아 1인당 5kg씩 가져가며 즐거운 추억을 쌓았다. 사과파기 체험을 마친 후, 오후에는 장수군 농업기술센터에서 ‘고향사랑기부제 기탁식’이 열렸다.

기탁식에는 최훈식 군수와 이권재 오산시장, 오산시 교류협회 심재철 회장을 비롯한 양 지자체 관계자와 주민 등 60여 명이 참석했으며, 심 회장은 장수군에 고향사랑기부금 100만 원을 전달해 훈훈한 분위기를 더했다.

심재철 오산시 교류협회장은 “고향의 발전은 우리 모두의 관심과 참여로 이루어진다”며 “기부금이 장수군의 지역 사회와 군민 복지 향상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소감을 전했다.

이권재 오산시장은 “장수군과의 인연

을 통해 고향사랑기부제 확산에 함께할 수 있어 뜻깊다”며, “앞으로도 두 지역이 지속적으로 협력해 상생 발전을 이뤄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최훈식 장수군수는 “정정 농업도시 장수군을 찾아주신 오산시 교류협회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소중한 기부금은 군민의 행복과 지역 발전을 위한 밑거름으로 소중히 사용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장수군 반암면은 제29회 노인의 날 기념행사 및 제30회 경료위안잔치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행사에는 자율방범대원들이 직접 정성껏 준비한 식사를 어르신들께 대접하며 따뜻한 마음을 나눴다.

김서주 기자

적극 현장 행정 지적재조사사업 효율 높여!



무주군은 2025년 지적재조사 사업지구인 설천면 배방 1, 2지구·월현지구·심곡지구에 경계 협의를 위한 현장사무소를 운영해 호응을 얻고 있다.

지적재조사 사업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토지의 실제 이용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를 바로잡고, 종이 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는 국가사업으로, 무주군은 올해 설천면 배방 1, 2지구·월현지구·심곡지구 등 4개 지구 1,165필지, 566,514㎡ 규모에서 지적재조사 측량, 경계 협의, 지적

공부 정리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무주군은 지난 10월 13일부터 15일까지 배방 1, 2지구, 20일부터 22일까지 월현지구에서 현장사무소를 운영했으며, 27일부터 운영에 들어간 심곡지구는 29일까지 운영할 예정이다.

마을회관에 마련된 현장사무소에는 관련 분야 공무원과 한국국토정보공사 직원이 상주하며 토지소유주들과 경계 협의를 진행 중이다. 배방 1, 2지구에서는 112건, 월현지구에서는 85건의 협의를 마쳤으며, 심곡지구에서는 현재까지

42건을 완료한 상태다.

송규완 무주군청 민원봉사과 지적재조사팀장은 “현장사무소 운영은 토지소유주들과 직접 소통함으로써 사업수행을 보다 원활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며 “현황 측량 결과와 드론 촬영 항공영상을 지도도와 비교해 만든 도면을 바탕으로 경계 협의를 진행해 정확성을 높였다”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기회를 통해 경계 협의 과정의 주민 불편을 줄이고 경계분쟁은 해소할 수 있었다”라며 “앞으로도 주민편에 선 적극 행정을 구현해 토지 이용 가치를 높일 있는 지적재조사 사업을 추진해 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해당 기간 중 현장사무소를 방문하지 못한 토지소유주는 무주군청 민원봉사과 지적재조사팀으로 문의하면 경계 등에 대한 자세한 안내받을 수 있다.

한편, 무주군은 10월 29일부터 11월 9일까지 진행되는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 기간 동안 무주사랑상품권을 최대 20% 할인된 혜택으로 이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캐시백은 무주사랑카드로 결제하면 고향사랑페이 앱(APP)을 통해 즉시 자동 적립된다.

김서주 기자

‘힘찬 도약 전남농업’ 결의, 선도 다짐해

전남 농촌지도자, 국제농업박람회에서 한마음대회…박람회 관람 등 화합·소통



김영록 전라남도지사는 28일 2025 국제농업박람회 주무대에서 열린 ‘전남 농촌지도자회원 한마음대회’에 참석해 농촌의 든든한 지킴이인 농촌지도자회원들을 격려하고, ‘힘찬 도약 전남농업’을 향한 결의를 다졌다고 밝혔다.

이번 대회는 ‘희망찬 농업! 활기찬 농촌! 슬기찬 농촌지도자!’를 주제로 열린 가운데, 김문수 전남도의회 농수산위원장, 윤병태 나주시장, 전남도의원, 농촌지도자 회원 등 2천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행사는 식전 공연을 시작으로 우수회원 표창, 비전 퍼포먼스 등으로 이어졌다. 참석자들은 국제농업박람회 전시장을 함께 관람하며 화합과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식전에 열린 전통문화 어울림 한마당에선 버나돌리기, 제기차기 등 다양한 경연이 펼쳐져 회원 간 친목을 다지는 한편, 지역 농업의 새로운 도약

을 다짐하는 결의의 장이 마련됐다.

시상식에선 지역사회 발전과 농촌진흥에 헌신한 우수회원과 공무원이 도지사상, 농식품부장관상, 농촌진흥청장상, 한국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장상, 한국농촌지도자전남도연합회장상 등을 받았다.

최원석 한국농촌지도자 전남도연합회장은 “지역 농업과 농촌을 이끌어가는 농촌지도자회원들이 한자리에 모인 만큼 변화와 혁신의 중심에서 더욱 단합해 ‘힘찬 도약 전남농업’을 선도하겠다”고 밝혔다.

김영록 지사는 “값진 땀방울로 국민의 먹거리를 책임지시는 농촌지도자 회원이야 말고 전남의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희망”이라며 “앞으로도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은 창의성과 혁신으로 전남이 AI농업을 선도하는 미래생명산업으로 도약하는데 앞장서 달라”고 당부했다.

한국농촌지도자 전남도연합회는

1947년 농촌 재건과 부흥을 위해 출범했으며, 현재 도내 248개 회, 1만 4천여 명이 활동 중인 대표적인 농촌지도자 단체다.

한편, 전라남도는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안정적 정주 여건을 마련하고 농번기 인력난 해소를 위해 주거 안정 지원사업을 확대한다.

전남도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숙소 확충을 위해 2025년까지 15개소의 건립·개보수를 지원하고 있다.

그동안 농림축산식품부에 최초 건의해 추진된 2022년 ‘농업근로자 기숙사 건립사업’으로 4개소(담양, 해남, 영암, 무안)를 건립해 운영하고 있고, 도 자체사업으로 11개소를 지원했다. 또한 2026년 농식품부 국비 공모사업에 참여해 진도군(35억 원 투입)이 선정됨에 따라 기숙사를 더 확충할 계획이다.

여기에 2026년 도 자체사업으로 2개소를 추가 지원할 계획으로 국비 공모가 확정된 1개소까지 포함하면 총 3개소를 더 갖추게 된다.

전남도는 올해 농업 분야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전국에서 가장 많은 1만 5천25명을 배정받았다.

10월 현재 9천여 명이 입국해 근로 중이며, 무·배추 수확, 마늘·양파 파종 작업 등을 위해 하반기에도 계속 입국할 예정이다.

김현미 농업정책과장은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농촌 현장에서 필수 인력인 만큼, 숙소 확충이나 처우 개선에 최선을 다해 지속가능한 인력수급 체계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우덕현 기자

아시아 주요국 여행사 대표단, 순천 방문해

전남 관광 세계화 첫 걸음, 남부권 연계 관광상품 개발



순천시(시장 노관규)는 지난 27일 남부권 연계 관광상품 개발을 위해 아시아 주요국 여행사 관계자로 구성된 대표단이 순천을 방문했다고 밝혔다.

대표단은 이날 오후 순천만국가정원에 도착해 환영행사에 참석하고, 낙안읍성과 송광사, 세계수석박물관 등을 잇달아 둘러보며 순천의 생태와 역사, 문화가 어우러진 관광자원을 직접 체험했다. 이번 방문은 2025년 9월부터 시행된 중국 단체관광객 무비자 제도에 맞춰 남부권을 잇는 아시아 시장 맞춤형 관광상품 개발을 위한 현장 네트워킹과 실질적 협력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마련된 행사로 의미가 깊다.

참가자들은 “순천만국가정원의 아름다운 경관과 낙안읍성의 전통문화, 송광사의 고즈넉한 분위기가 조화를 이루며 한국 남부권 관광의 중심지로 손색이 없다”고 평가했다.

시 관계자는 “순천만국가정원과 낙안읍성, 송광사 등은 단순한 관광지를 넘어 전남의 정체성과 문화를 대표하는 자산”이라며 “이번 팸투어를 계기로 순

천이 전남 관광의 중심이자 남해안권 관광 네트워크의 출발점으로 확실히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밝혔다.

팸투어는 세계적인 목적지 관리 전문기업 하이시스 인터내셔널(HISEAS International)과 인바운드 전문기업 에이치에스레저산업(HS Leisure

Industry)이 공동 주관했으며, 중국, 태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필리핀, 말레이시아 등 아시아 6개국 주요 여행사 대표와 지사장 등 총 35명이 참가했다.

한편, 순천시는 오는 11월 1일 ‘제15회 정제봉 동화잔치’를 개최한다.

우덕현 기자

광주시 복구, 맞춤형 금융 복지 정책 성과 빛났다

광주광역시 복구(구청장 문인)는 2025년 제10회 금융의 날 기념식에서 전국 지자체 중 유일하게 대통령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금융의 날 기념식은 금융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제고하고 금융 발전에 기여한 기관 및 개인을 격려하기 위해 매년 금융위원회의 주관으로 열리는 행사이다.

이번 기념식에서 수여된 정부포상은 ▲저축·투자 ▲포용금융 ▲혁신금융 등 3개 분야에서 눈에 띄는 공적을 보여 금융 발전에 기여한 전국의 기관 또는 개인을 격려하고자 마련됐다.

복구는 올 한 해 ‘지역맞춤형 포용금융 실현’으로 모두가 살기 좋은 금융안

심도시 실현’을 목표로 금융 접근성이 낮은 소상공인과 금융소외계층을 지원하고자 ▲현장 중심의 대응 체계 구축 ▲생활밀착형 금융지원 ▲서민금융 사각지대 해소 등 다각적인 포용금융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특히, ‘디딤돌 3無(무이자·무담보·무보증료) 특례보증대출’, ‘민생경제 회복상생 기금 조성’ 등 지방정부 주도의 선제적 금융지원과 ‘임차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 ‘복구형 생활 안정 지원금 지급’ 등 지역경제 선순환을 위한 금융취약계층 핀셋 지원 등은 전국적인 모범 금융 복지 사례로 꼽혔다.

이 같은 성과로 복구는 오늘 오전 10

시 30분 서울 여의도 FKI타워 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제10회 금융의 날 기념식에서 대통령상을 받는 영예를 안았다. 문인 복구구청장은 “이번 대통령상 수상은 금융 사각지대 해소와 서민금융 정책 활성화를 위해 공직자와 함께 노력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소상공인과 서민들의 금융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지원사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복구는 지난 2020년 제5회 금융의 날 기념식에서도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금융 지원사업 추진 실적을 인정받아 전국 지자체에서 유일하게 대통령상을 수상한 바 있다.

손경일 기자